



이만구  
포천문화원장

時論 포천문화원장 이만구

# “북한의 핵 보유 선언”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

북한은 지난 2월10일 의무성 성명을 통하여 『6자 회담 참가 무기한 중단』 및 『핵 무기 보유』를 공식선언 했다. 북한 당국이 이처럼 핵무기 보유를 공식 언급하고 6자 회담 참가를 무기한 중단 한다고 선언함에 따라 관련 당사국들의 외교적 행보가 몹시 빨라지는 한편 북한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이번 발표를 놓고 협상을 앞둔 북한이 언제나 그래 왔듯이 협상을 버릴 꾀 전술일 테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낙관론부터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는 비관론까지 뒤엉켜 몹시 혼란스럽다. 관련 국가들의 당국자나 북한 전문가들도 북의 진의 파악에 매우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북한 핵 문제는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또한 전문가들이 예상해 온 세 가지 선택중 북한이 최 강수를 선택했음을 의심 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북 핵 문제는 이제 한국을 비롯한 5개국의 태도 특히 미국의 대응에 따라 그 양상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전문가들이 예상한 북한이 선택 가능한 세 가지 시나리오란, 첫째는 북한이 체제보장, 경제적지원등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핵 동결에 합의함으로써, 일단 급한 위기는 넘기는 제일 바람직한 시나리오다. 둘째는 파국만은 피하면서 이러한 이유를 들어 시간을 좀 더 끄는 경우이다.

그런데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의 핵 개발이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여타 당사국들이 무한정 방치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셋째는 정면 돌파 시나리오로써 북한이 외부의 압박을 뿌리치고 공식 선언을 통해 공개적으로 핵보유국이 되는 것인데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선택했다.

2기 부시 정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6자 회담 불참 선언을 하는 것은 회담용 카드로 그렇다 하더라도 처음 언급한 『핵무기 보유선언』은 그냥 넘어 갈 사안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여기서 북한의 핵 관련 주요 일지를 살펴보면 1965년 영변에 구 소련 연구용 원자로를 건설한 이후 1985년에 NPT(핵 확산 금지조약)에 서명하였으나, 그 후 미국은 북한이 비밀리에 원자로를 건설하고 있다고 계속 주장해 왔으며, 1994년 미국이 중유를 제공하고 2기의 경수로 건설을 지원하는 대신 북한은 무기 개발이 의심되는 핵 프로그램의 동결 합의를 체결했다.

그러나 2001년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이 1~2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미국은 2002년 11월 대북 중유 공급을 중단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북한은 IAEA 요원을 추방하고, 2003년 3월에는 NPT에서 탈퇴하더니 드디어 지난 2월10일에는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북한이 정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인가? 만약 보유하고 있다면 어느 수준인지? 또한 만드는 중이라면 실제로 위협적인 핵무기로 개발하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이 2월10일자 성명에서 『핵 무기고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취할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이것이 사실이라면 현재 가동중인 원자로에서 폐연료봉을 추출, 재처리 하거나 CTBT(전면 핵 실험 금지 조약)에도 불구하고 핵 실험을 공개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된다면 북한 핵 문제를 더 이상 외교의 영역에만 묶어 두기에는 한계점에 다 달았음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는 한국전쟁 이후 우리가 당면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안보의 위협 요소이기 때문이다.

2004년도 국방 백서에서 밝혀진 남·북한의 군사력 비교에 의하면 병력이 남한 68만1천명인데 반하여 북한은 1백17만명, 지상 장비로 전차와 장갑차가 남한 4천7백대, 북한 5천8백대, 야포 등이 남한 5천3백여대, 북한 1만3천5백여대, 해상 전력은 남한이 1백70여척, 북한이 4백90여척 공군 전력은 남한 1천4백90여대, 북한이 1천7백여대, 예비 병력이 남한 3백4만 여명인데 반하여 북한이 7백70여만명으로 단순 숫자 비교로는 북한이 핵무기를 제외 하더라도 훨씬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다 핵무기까지 보유했다면 가히 위협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아직은 북한이 핵 실험을 하지도 않았고 실제 핵무기를 외부에 공개하지도 않았으며, 그저 『말』만 있는 상태인 것이다. 만약 북한이 어떤 방법으로든 핵무기를 갖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 준다면 한반도의 힘의 균형이 북한 쪽으로 급속히 기울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핵을 가진 북한은 사실상 한반도 전체를 인질로 삼는 “벼랑 끝 전술”을 펼 수도 있으며, 우리는 북한의 핵 위협 앞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녀야 하는 상황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 정부의 대북 군사적 역지력이 무력화됨은 물론 경제력등 국력의 상대적 우위가 핵 위협 앞에 힘을 잃을 가능성을 우리는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할 것인가? 우리도 늦었지만 핵무기를 만들어야 할 것인가? 그러나 한반도의 비핵화를 정부의 꾸준한 정책조로 삼고 있는 만큼 우리가 핵 개발에 나서지는 것은 비합리적일 뿐 아니라 아마도 이는 미국에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우리가 핵 개발을 서두르면 일본과 대만은 자기네들도 핵을 개발하겠다고 서두를 것이며, 이 같은 “핵 개발 도미노현상”은 미국이 제일 열려하는 상황으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의식한 미국은 지난 2월15일 한반도의 비핵화를 3대 원칙중 하나로 서둘러 강조 선언한 바 있다.

지금 세계적으로 핵 보유가 공인된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등 5개국이나 이들 소위 핵클럽 5개국은 NPT를 통하여 지난 30여년간 추가로 핵보유국이 등장하는 것을 철저히 막아왔다.

이 5개국 외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90년대 후반 핵 실험을 통해 핵보유국으로 등록하려 했지만 국제 사회는 인도와 파키스탄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다는 의미는 군사·외교적 측면에서 실로 막강한 것이다. “전략적 파괴력과 억지력”을 갖춘 국가의 반열에 오르는 것이고 그만큼 국제적인 위상이 달라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핵무기는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주변국에 엄청난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평가를 내리는 것이다.

북한의 언급을 협상용 카드로만 단정 짓는 나머지 애써 무시하거나 과소평가 해서도 안 될 것이며, 그렇다고 실증도 없는 이 마당에 북한의 말만 믿고 핵 능력을 과대평가해서 불인반 조성하는 행위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불안과 혼란을 막기 위해서도 북한의 핵 무장 능력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평가는 꼭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북한 핵 능력의 많은 부분들이 공개 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의 대응 방안도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정부는 2004년도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1~2개의 핵무기를 제조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 된다”고 언급한 이상 북한 핵 능력의 실제 파악과 평가 그리고 북한 핵 폐기를 위한 노력에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핵 폐기를 중용하기 위하여 미국을 비롯한 관계 당사국들의 경제적, 외교적 압박 수위는 점점 그 강도가 높아질 것이며, 이런 와중에서 한반도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한편으로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외교적 도전이요 시련이 될 것이다.

남북 교류 협력과 북한 핵의 폐기 노력을 적절하게 연계하는 것도 통일 안보 분야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 되어야 할 것이며, 북한 핵에 대응한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의 방위 태세를 확립하는 것도 우리의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만약 북한의 핵 보유 선언이 사실이라면 핵이 있는 북한과 핵이 없는 남한이라는 힘의 불균형과 불리한 전략적 위치에서 “핵이 있는 한·미 양국” 대 “핵 보유 북한”이라는 대칭적이고 안정적인 역지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이제 한반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북한의 핵 보유 문제로 한국의 전략적 환경이 크게 바뀌고 있는 현실적 토대 위에서 한반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치밀하고도 확실한 대응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자유기고 ● ● ● 공예 부흥의 비원이 서린 조종산 (上)



이수영  
화현면 체육진흥협의회장

운악산(雲岳山·935.5m)은 양주의 감악산, 가평의 화악산, 개성의 송악산, 과천의 관악산과 함께 경기도의 5대 명산으로 꼽히던 경기도악(京畿五岳)이다. 그리고 풍우(風雨) 산을 <대동여지도>에 병기하면서 운악산의 동편에 현등산을 그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기록을 근거로 하여 똑같은 산을 가평 사람들은 예전부터 현등산이라고 불렀고, 포천 사람들은 운악산이라고 불렀던 것이라고들 말한다. 실제로 가평쪽(조종면 상판리)에 현등사라는 절이 있어서 이 주장은 더욱 그럴듯하게 들린다. 하지만 이 또한 이 지방사람들의 영터 믿음인 것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이나 <광무읍지> <대동여지도> 산천조를 살펴 보면 예부터 가평과 포천 고을에서 모두 이 산을 운악산으로 인식했던 사실을 기록으로 분명히 남겨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운악산의 대표적인 산이름은 운악산이 분명 옳다고 하겠다. 다만 현등사라는 큰 절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예로부터 ‘현등사라는 절이 있는 산’이라고 인식하고는 현등산이라고도 함명으로 불렀을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현등사사적기>에조차 보조국사 지눌이 망일사 원통암에 머물며 운악산을 바라보아 산 속에서 삼일동인이나 밝은 빛을 내뿜었다. 지눌이 기이하게 여겨서 그곳을 찾아가니 과연 관음전이 우뚝 서 있고 남쪽 바위 위에 옥등(玉燈)이 불을 밝히고 있었다. 그래서 절을 중창하고는 “등불(燈)이 걸려있던(懸) 절(寺)”이라고 하여 현등사라 이름을 정하니 산이름도 현등산이 되었다고 기록했다. 따라서 본래 산이름은 운악산이었는데 현등의 신이한 행적 때문에 현등사가 세워지면서 또 다른 산이름으로 현등산이 되었다고 그 유래를 비교적 정확하게 밝히고 있다.

항일의병을 도모하다 은신지로 쫓겨서 조선 산천을 주유한 정감성 처사는 “금강산을 떠난 후로는 조선팔도에서 다시는 절경을 볼 수 없었는데, 운악산에서 마침내 금강산의 진경을 보았다”고 극찬했으니 운악산의 빼어난 아름다움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포천군읍지>와 <견성지>에서도 운악산의 절경을 금강산에 견주었으니 정감성의 운악산찬송은 지나치게 과분한 대접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한편의병을 도모하다 은신지로 쫓겨서 조선 산천을 주유한 정감성 처사는 “금강산을 떠난 후로는 조선팔도에서 다시는 절경을 볼 수 없었는데, 운악산에서 마침내 금강산의 진경을 보았다”고 극찬했으니 운악산의 빼어난 아름다움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포천군읍지>와 <견성지>에서도 운악산의 절경을 금강산에 견주었으니 정감성의 운악산찬송은 지나치게 과분한 대접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글이 <포천군읍지> <견성지> <산경표>에도 전제하고 있다. <산경표>에는 “포천에서 동쪽으로 30리, 가평 경계에서 서쪽으로 60리에 운악산이 있는데, 일명 현등산으로 불린다. 이 산에서 산줄기가 넷으로 나뉘어진다(雲岳山一名懸燈 抱川三十里加平西界六十里分四峯)”고 기록하고 있다.

운악산 이름은 <동람도-경기첩>, <청구도>, <세종실록지리지>, <해좌승람>, <대동여지도>, <경기 37관도>, <경기 38관도>, <대동지지-가평초>, <여지도-경기첩>, <동여도>, <대동여지도>,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기록이 보인다. 또 <동국문헌비고>와 <해동도>에는 운악(雲岳)이라고 기록했으며, <해동여지도> <포천군읍고지도>에는 현등산 기록만이 보인다. <동여비고> <경기고지도첩> <여지도> <천하여지도책> <경기도도>에는 운악산과 현등산(懸燈山)을 병기했다.

그리고 광무년간(1899년)에 편찬된 <포천군읍지>에는 “운악산은 포천 고을로부터 동쪽으로 30리쯤에 있는데, 곧 현등산 동쪽에 있는 산이다”라고 기록했다. 이는 기록자가 매우 부정확하게 오기한 경우이다. 또 고산자 김정호는 운악산과 현등



## 고객안전 · 고객만족 · 고객사랑을 지향하는 ‘금마고속관광’

고객님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격려로 성장해온 ‘금마고속관광’은 언제나 친절과 안전운행을 약속합니다.



◇ 최신형 전세버스 완비 ◇  
25인승, 35인승, 45인승

- 호도관광
- 수학여행
- 신혼여행
- 문화재답사

